

## 『單方新編』以後 文獻傳承에 관한 研究

<sup>1</sup>한국한의학연구원  
全鍾項<sup>1</sup> \*

### A study on the literal transmission of *Danbangshinpyon*(單方新編)

Jeon Jong-wook<sup>1</sup> \*

<sup>1</sup>Korea Medicine-based Herbal Drug Development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This paper analyze several version of *Danbangshinpyon*(單方新編), a simple medical book that was widely used in the private sector from late Joseon dynasty to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Since it had not only collected the treatments easy to get around but also translated the classical Chinese into Korean, *Danbangshinpyon*(單方新編) was popular in the environment of poor medical service for the people.

**Methods** : We compared several types of issue having been popular either in the form of plate printing or as manuscripts until recently.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增補單方新編) was edited in 1913, and it had been published a total of 13 times until 1922 with 8th edition. On the other hand, it is regarded that the contents of which are again included into *Shinpyonmyobang*(新篇妙方) published in 1938.

**Results** : *Danbangshinpyon* was edited to match the demand for medical care at the time in 1909 on the basis of previously existing *Gyungheombang*(經驗方) of that time. Taking advantage of the public popularity of *Danbangshinpyon*,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 was hurriedly constructed with weak consideration of upgrading the content. *Shinpyonmyobang*(新篇妙方) contains the whole content of *Danbangshinpyon*(單方新編) in the second half of it. Surveying details in the *Shinpyonmyobang*, one can find that it had been edited to copytext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 rather than *Danbangshinpyon*(單方新編). In other words, it is presumed to have been re-edited after the publication of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

**Key Words** : *Danbangshinpyon*(單方新編),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增補單方新編), *Shinpyonmyobang*(新篇妙方), *Gyungheombang*(經驗方)

## I. 序 論

우리나라에서 단방의 활용에 대한 전통은 매우 유래가 깊다. 대표적으로 조선 초기 『鄉藥集成方』에 쓴 權近의 서문을 보면, “藥에 君臣佐使가 있는 것은 오래된 법이로되, 俗方이나 單方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더욱 빠를 때가 있다(藥有君臣佐使 古也 而亦有以俗方劑 取效尤速)”라고 하여, 단방의 중요성을 특필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한말 일제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은 지방의 儒醫, 또는 식자 계층이 기존의 유명 의서에서 긴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묶은 책이나, 思辨的 醫學理論을 배제하고 필요한 病症과 治療法만을 기록하는 단방, 자신의 臨床 體驗을 담은 經驗方流의 의서 등 대중적 간편 의서가 다양하게 나왔다.<sup>1)</sup>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單方新編』은 이러한 시대적 의료 경향에서 마지막으로 發花한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單方新編』이 보급되던 때는 국가의 료체계가 불안하고 민중에 대한 의료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였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요긴한 치료법을 모으고 언해로 쉽게 풀어서 보급한 단방서는 도회에서부터 궁벽한 시골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그 간행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1909년에 처음 『單方新編』이 간행되었고,<sup>2)</sup> 1913년에 『增補單方新編』이 발간되어 1922년에는 8쇄본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또 1938년에는 대구 嶠南書社에서 『新編妙方』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집 간행되었으며, 일제 강점기를 넘어 1978년에도 明文堂에서 간행하였고, 2000년에는 현대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비록 『동의보감』과 같은 전문 의서와는 다른 측면에서, 즉 민간 의료 차원에서 당시로서는 물론이거나 최근까지도 수요가 대단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한편 이 과정에서 『單方新編』은 여러 가지 刊行本이 발행되었고, 또 筆寫本이 쓰여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간본과 사본의 현황, 그리고 실제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sup>4)</sup>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이 책의 체재와 편찬 배경에 대해 살펴본 다음, 실제 간행 현황을 시기별로 검토하여 『단방신편』에서 『增補單方新編』, 그리고 『新編妙方』으로 이어지는 문헌 전승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單方新編』의 體裁와 編纂 背景

『單方新編』은 다수의 간본과 사본이 존재하나, 각각의 체재와 구성에 있어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刊寫本들에 있어서 공통되는 기본 체재와 구성을 검토하면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초기본(1909년)이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독의학박물관 『單方新編』<sup>5)</sup>을 보면, 그 표지에는, ‘單方新編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單方新編序’라는 이름으로 晦觀居士 李應翼과 惠舫 高永周가 쓴 2개의 序文이 있다.

다음으로 ‘單方新編目錄’이라는 이름으로 目次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총 49개의

\* Corresponding Author : Jeon Jongwook, KM-based new drug development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8-9258. E-mail: lovejni@kiom.re.kr.  
접수일(2014년 04월28일), 수정일(2014년 08월18일),  
게재확정일(2014년 10월27일).

- 1) 김대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4.; 박상영, 인제지의 조선후기 의사학적 위상과 의의, 한국실학연구 제25집, 2013, pp.560-561. 참조.
- 2) 金斗鍾의 한국의학사 등에서는 單方新編의 최초 간행을 1908년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李應翼과 高永周의 서문에 나오는 ‘隆熙二年’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간행은 1909년 1월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런 측면에서 『단방신서』는 일제 강점기 민간의 베스트셀러로 유행했던 단방의서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지원, 1920년대 경무국 위생과 조사보고서를 통해 본 의료민속 연구, 역사민속학 제4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p.173. 참조.

4) 단방신편은 조선중기의 유학자 舟村 申曼(1620~1669)과 조선후기의 실학자 茶山 丁若鏞(1762~1836)이 공저자로, 그리고 鎭石 李義綱이 편역한 것으로 그 문면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만과 정약용 공저설’에 대해 근래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근거가 희박하며, 결론적으로 상업적 출판을 위해 두 사람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자료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한독의학박물관, 유물번호 : 52337, 일산문고 : 한 50-2337.

Table 1. Constitution of 『Danbangshinpyon』

대항목: 49가지(31문, 17부, 1병) 소항목: 440가지 세부치료법: 953가지 ('○'표기로 구분)
예) 대항목 風門 소항목 (中風) 바람마진딧 세부치료법: ○凡風症濕之所祟也 細切松葉 一匙和水常服 증풍에술넙을간을게썰어물에타항상먹으라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風門」, 「寒門」, 「暑門」, 「濕門」, 「燥門」, 「火門」, 「內傷門」, 「虛勞門」, 「瘡亂門」, 「瘡疾門」, 「痰門」, 「嘔吐門」, 「咳逆門」, 「咳嗽門」, 「消渴門」, 「小便門」, 「大便門」, 「精門」, 「神門」, 「血門」, 「積聚門」, 「脹滿門」, 「浮腫門」, 「黃疸門」, 「諸蟲門」 / 「頭部」, 「面部」, 「眼部」, 「耳部」, 「鼻部」, 「口舌部」, 「牙齒部」, 「頷項部」, 「咽喉部」, 「背部」, 「胸腹部」, 「乳部」, 「腰脇部」, 「皮部」, 「手足部」, 「前陰部」, 「後陰部」 / 「瘡腫門」, 「婦人門」, 「小兒門」, 「諸傷門」, 「解毒門」, 「救急門」 / 「六畜病」.

이상 『單方新編』의 대항목들은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질환명으로 구성된 「風門」에서 「諸蟲門」까지 25항목, 둘째, 인체 부위명으로 구성된 「頭部」에서 「後陰部」까지 17항목, 그리고 후반부에 상당한 분량으로 편집된 「瘡腫門」, 「婦人門」, 「小兒門」, 「諸傷門」, 「解毒門」, 「救急門」의 6개 항목, 마지막으로 가축의 질병을 다룬 「六畜病」 1항목이 덧붙여서 총 49개의 대항목이 된다. 이와 같은 편제는 널리 알려진 질환별로 먼저 제시하고, 다음 신체 부위별로 한 번 더 살펴나가는 순서로 이

해할 수 있다. 후반부에는 부인과와 소아과의 치료법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창중이나 해독, 구급에 대한 치료법도 별도로 편집하였으니 이는 의학에 조예가 없는 민간의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한 『單方新編』 편찬 의도를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적 특징을 말해보면, 『單方新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인체의 생리·병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나 복잡한 진단법은 제외되어 있다. 즉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증상과 구하기 쉬운 재료를 대응시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참기름, 계란, 밀가루, 생강 등 민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료의 사용 횟수가 특히 많은 점이 그것이다.<sup>6)</sup> 인삼, 당귀, 천궁과 같은 대표적인 약재보다 사용횟수가 많은 것이다. 또 「瘡腫門」은 『單方新編』에 수록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병증에 대하여 74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외상, 피부병, 나병, 화류병 등의 질환이 유행하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된 「六畜病」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소·말·양·돼지·개·닭의 흔한 병에 대한 간단한 치료법이 부

6) 예를 들면 참기름(眞油) 37회, 계란 28회, 밀가루 15회, 생강 90회 등이다. 물론 인삼(8회), 당귀(19회), 천궁(10회) 등도 질병 종류와 필요에 따라 쓰이고 있다.

록처럼 더해져서 민가에서 주요 재산이 되는 가축을 병들어 죽게 하지 않고 잘 사육하는 방법을 기록하였다.<sup>7)</sup> 이밖에 간행 당시의 20세기 초 연해가 병기되어 있어 순수우리말의 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sup>8)</sup>

다음, 그 체제를 살펴보면, 위에서 든 49개 대항목 아래에는 ( ) 로 표시된 세부 질환명이 나오는데, 총 440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이 소항목에는 각 질환마다 치료법 1~18가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연해 첫머리에 ○를 달아 두었다. 이렇게 해서 『單方新編』에 들어있는 세부 치료법은 총 953개가 되는데, 이들 대항목, 소항목, 세부치료법에는 한문과 함께 언문이 대역되어 있다. 이것은 『단방신편』이 민간에서 널리 유통,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 『단방신편』의 체제를 간단히 그려보면 위의 <표1>과 같다.

다음 본문의 첫페이지를 보면, 우선 ‘單方新編’이라는 제목 아래에 茶山 丁若鏞과 舟村 申曼, 그리고 역자로 錦石 李義綱이 병렬되어 있다<그림 1>. 그러나 조선중기의 신만과 조선후기의 정약용은 동시대인이 아니므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저자였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또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經驗痘方』, 『小兒醫方』 등에서 ‘茶山 丁若鏞’이라는 이름이 도용되어 사용된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10)</sup> 이와 같은 정황상 학계에서는 『單方新編』이

신만과 정약용이라는 두 사람의 저명한 인물을 가탁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출간물일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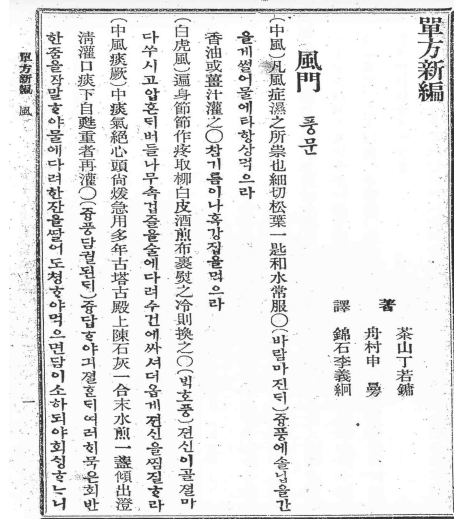


Fig. 1. First page in the body text of 『Danbangshinpyon』

그러나 한편 『單方新編』의 경우, 두 개의 서문에서 역자 이의경이 다산과 주촌 두 사람의 방식을 선택 편집하여 번역을 한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두고, 편역자인 李義綱에 대한 인물 정보를 찾아보면, 甲午農民戰爭 당시 雲峰 縣監으로 공적을 기록한 사람들의 명단에 그 이름과 관직이 등록되어 있으며,<sup>11)</sup> ‘대한연초(주)’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중역을 맡았던 기록이 보인다.<sup>12)</sup>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지위와 자금력이 뒷받침되어 『單方新編』의 출판을 맡을 여유가 있었던 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7) 예를 들어, 牛病에서 ‘피종 누는딴 아궁이 바닥의 황토 두 량을 술 口 되에 다려 차게 먹이라’(牛病, 糞血 取籠中 黃土二兩 酒一升 煎候 冷灌) 라고 한 것이나, 鷄病에서 ‘각색 병에 참기름을 먹이면 죽죽’(鷄病, 雜病 以眞油灌之 立愈)와 같은 내용이다.
- 8) 예를 들어 鱒魚의 우리말은 ‘드렁허리’로 되어 있는데, 드렁허리는 무엇에서 온 낱말인지 언뜻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단방신편』의 연해에 ‘두렁썩리’로 표기된 것을 보면 곧 ‘두렁뚱이’에서 온 단어임을 끄집어낼 수 있고, 이 생물이 논두렁을 이리저리 뚫고 다니는 습성을 가진 놈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멸치를 幾魚로 표기한 것은 ‘몇[幾]’과 ‘치[고기][魚]’가 합해진 吏讀식 표기법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淋瀝, 子懸 등과 같은 질병명도 ‘오줌솟태’, ‘태가 낙려안진 디’처럼 깔끔하게 와 닿는 단어로 전달해 주고 있어 한의학 용어의 쉬운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 9) 단방신편 목차 상에는 439개 소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목차에 누락되고 본문의 소항목으로 나타나 있는 질환으로 胸腹部的 眞心疼 1건이 있어 총 440개가 된다.

- 10) 이 부분은 추후 논문에서 상론할 예정이다.
- 11) 서울대학교 규장각, 公文編案, “前雲峯縣監 李義綱 六品 孤軍守城劃算決勝.”
- 12)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11일자. “金宗漢, 金鎬秀, 李義綱, 車基倫, 李寶應, 金景明, 李升鉉, 金奎觀.”

다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單方新編』에 수록된 두 편의 서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이응익이 쓴 첫 번째 서문의 후반부이다.

주존 신만 공과 다산 정약용 공은 經世濟民의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黃帝岐伯의 의술을 배워 치료 효험을 확인한 단방으로 책을 저술하였으니, 君臣佐使之 처방처럼 번거롭지 않고 湯·散·丸·丹의 제조법 같이 세밀하지 않아서 오직 증상에 맞추어 투약하면 손쓰는 대로 병이 낫는다. 참으로 수명을 늘이는 金丹이요 백성을 건지는 뗏목이다. 책이 나온 지 백년이 지났지만 세상에 공표되지 못하던 것을 내 친구 이의경씨가 개연히 자금을 출자하여 두 선생의 책을 수집하여 편집하고 출판하여 널리 전하였으니 이름을 ‘단방신편’이라 하였다. 또한 두 분의 뜻을 깊이 터득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 옹희 2년 12월에 회관거사 이응익이 서문을 쓰다.

(舟村申公曼 茶山丁公鏞 抱經濟之才 學軒岐之術 以經驗單方 著之於書 不煩君臣佐使之方 不藉湯散丸丹之製 惟按症投藥 隨手而瘳 信壽世之金丹 濟民之寶筏也. 書出且百年而未有能公諸世者 吾友李義綱氏 迺慨然出力 蒐輯二公之書 繡諸梓而廣其傳 名之曰 單方新編 其亦深得乎二公之志者也歟. 義綱氏年過耳順 康健如少壯人 燕居終日 未嘗欹臥 苟非節嗜欲而善調養 烏得以致此 雖自以謂不學醫 吾必謂之學醫也. 隆熙二年十二月 日 晦觀居士 李應翼序.)

이 서문을 쓴 이응익은 한말 정부 고위관리였던 인물이다.<sup>13)</sup> 여기서 그는 먼저 신만과 정약용 두 분이 ‘經世濟民’ 뿐 아니라 의술을 배워 책을 저술하

였으며, 그 내용이 번거롭거나 세밀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 투약하면 즉시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의경에 대해서는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였으니, 두 분의 뜻을 깊이 터득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의경은 신만과 정약용의 의학 저술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당대 요긴하게 쓰일 만한 단방을 추려내어 한권의 책을 엮었다는 말이다. 다음은 두 번째인 고영주의 서문 중 후반부이다.

신주존과 정다산 두 선생은 경세제민의 명가일 뿐 아니라 의학에도 정예로웠으니, 경험 처방을 저술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금석 이의경씨는 뜻있는 사람이다. 매번 공익적인 일에는 노년에도 가만있지 않더니 두 선생이 저술한 本方을 수집 편집하여 ‘단방신편’이라는 이름으로 책 한 권을 이루었다. 국한문을 함께 달아서 나란히 풀었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책을 열자마자 조금도 난해함이 없이 명료하게 알도록 하였다. 진실로 병의 원인이 헛갈리어 누구도 진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어리석은 필부필부라 하여도 대증 투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장차 큰 도회지에서부터 궁벽한 시골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책상과 서랍에 이 책을 두게 될 것이니, 두 분의 저술을 천양하고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점에서, 이공의 공적이 또한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서문을 짓는다. 옹희 2년 동짓날 혜방 고영주는 쓰다.

(申舟村 丁茶山 兩先生 以經濟名家 精於醫學而 所以著錄經驗之方 寔由於此也. 錦石李義綱氏有志人也. 每於公益上事爲老猶不懈焉 乃就兩先生所著本方蒐羅編輯 彙成一書 名曰 單方新編 以國漢文雙註而并釋之 欲使覽者 開卷瞭然 無少難解 苟非病源疑眩 莫能診察 雖庸夫愚婦 足可以對投而奏效也 將見通都大郡 以至山陬海澨 家家案篋 輒有

13) 이응익(생몰년 미상)은 1883년에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기국의 사사를 지냈고,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공조 참의로 特除되어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참여하였다. 1906년에 훈4등 태극장이 수여되었고, 1910년 정2품이 되었다. 고종실록·일성록·대한제국관보 참조.

此編 其於闡揚前述裨補廣濟 李令之功亦豈淺少乎哉 是爲之敘. 隆熙二年 長至日, 惠勗高永周書.)

이 글을 쓴 고영주는中人 출신으로, 委巷文學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확인된다.<sup>14)</sup> 여기서도 먼저 위와 마찬가지로 신만과 정약용 두 분이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경험 처방을 저술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의경이 그것들을 수집하여 국문을 병주하여 풀어서 출간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책이 도회지에서부터 궁벽한 시골에까지 보급되어, 두 분의 저술을 알리고 널리 백성을 구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이의경의 공적을 칭송하고 있다.

즉 이 두 편의 서문 만을 보면, 이의경이 신만과 정약용 두 분의 경험 단방 중에서 당시 의료 수요에 가장 요긴한 것을 가려 뽑고, 또 언해를 붙여서 『單方新編』을 출판한 것이 된다.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 두 분의 의학 경험방이 오랫동안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20세기 초 이의경에 의해 시대적 수용에 맞게 다시 한 번 재편집되어 간행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최종적인 판단은 과연 서문의 설명대로 『單方新編』의 내용이 두 선생의 의학저술을 어떻게 승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입증해내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어지는 장에서는 『單方新編』의 간행 현황과 문헌 전승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III. 『單方新編』의 文獻 傳承

#### 1. 『單方新編』의 刊行 現況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김두종의 『韓國醫學史』, 미끼사카에(三木榮)의 『朝鮮醫書誌』, 이성우의 『韓國食經大典』<sup>16)</sup> 등에서는 『單方新編』의 최초 간행

을 1908년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이응익과 고영주의 서문에 나오는 '隆熙 2년(1908)'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간행은 1909년 음력 1월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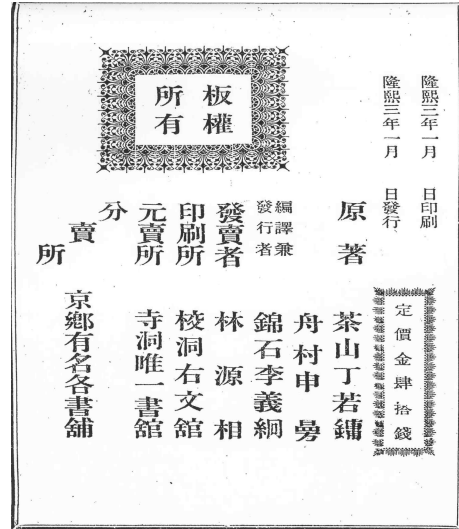


Fig. 2. Copy right paper of 『Danbangshinpyon』 by Yuilseoguan

○ 1909년(음회3) 유일서관본

『單方新編』은 1909년에 신연활자로 간행되었는데, <그림 2>는 한독의약박물관본 『單方新編』의 판권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책은 1909년(음회2) 1월 京城 寺洞의 唯一書館에서 간행한 것으로, 원저자가 정약용과 신만으로 되어 있으며, 편역겸발행인은 이의경으로 되어 있다. 또 인쇄발행일 아래를 보면, 이 책의 정가가 肆拾錢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발매자는 林源相이며, 인쇄는 校洞의 右文館에서 하였고, 分賣所는 '京鄉有名各書舖'로 되어 있다. 즉 사동의 유일서관에서 발매되어 서울과 지방의 유명 서점에 널리 배포 판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그 판매 가격이 40전으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화폐가치를 추산해보면, 이보다 2년 전인 1907년 『大韓每日申報』에 실렸던 '국채보상운동의 결의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조.

15) 舟村과 茶山の 저술과 『單方新編』의 내용적 전승의 문제는 별도의 심층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6)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3, p.391.; 三木榮, 『朝鮮醫書誌』, 自家印行, 1956, p.161.;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향문사, 1998, p.537.

이 극채를 값는 방법으로 2천만 민중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급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을 거둔다면 1,300만을 모을 수 있으며……17)

이 「결의문」을 보면, 국민 1인당 한 달에 소비하는 담배 가격을 약 20전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單方新編』의 구입가격은 그 2배에 해당한다. 참고로 당시 인쇄상태의 질이 떨어지는 국산소설이 6전, 서양에서 들어온 신소설이 10~15전 정도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조해보면, 당시 『單方新編』이 지녔던 가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나 활용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면서도, 민간에서 구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이밖에 1909년 간행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울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京城 高文館에서 출판한 것이 있다.

○ 1911년(明治44) 東文館本, 1912년 東洋書院本  
1911년 京城 東文館에서 인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소장처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이 있다. 또 1912년에 간행된 것으로는 대전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있는데, 이 간본에는 부제로 ‘茶山舟村合經驗方’이라고 쓰여 있고, 京城의 東洋書院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單方新編』은 1909년 유일서관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 1911년과 1912년에 동문관과 동양서원에서 각각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1913년에는 『增補單方新編』으로 이름을 바꾸어 1922년까지 출판이 이어지게 된다.

## 2. 『增補單方新編』의 刊行 現況

『증보단방신편』은 말 그대로 『單方新編』의 증보판이다. 『單方新編』과 마찬가지로 정약용과 신만을 공저자로 하고 있으나, 편역자의 이름이 이의경이 아닌 池松旭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로 지송옥은 일제 강점기 소설가 율탄 박종화의 집에서

‘新舊書林’이라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교양서, 역사물, 소설류 등을 발행하여 근대계몽운동과 서적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여기서는 우선 『增補單方新編』이 『單方新編』을 얼마나 ‘증보’한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편 의상 1922년 박문서관에서 간행한 『增補單方新編』(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을 표본으로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편제나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목차 구성에 있어서 소항목이 440개에서 480개로 40개가 증가하였는데, 그것들을 나열해보면 「諸傷門」이 9개(落傷·腹裂傷臟出·違骨·火傷·金刀傷·狗咬傷·蛇咬·蛇入口中·蜂螫)로 가장 많았으며, 「瘡腫門」이 7개(勿論某種·破腫處·背瘡·下疳瘡·痔疾·唐瘡·諸有根惡瘡)로 그 다음이고, 「手足部」가 3개(肩臂痛·脚氣痛浮·四肢痛), 「小兒門」이 3개(臍自落者·丹毒·聾耳), 「風門」이 2개(半身不隨眼口不正邪·白轉風), 「濕門」이 2개(濕痰滯·水土不服寒熱身重怠困), 「牙齒部」가 2개(齒痛·風齒), 「解毒門」이 2개(馬肉毒·諸骨鯁在咽), 「寒門」이 1개(運氣), 「暑門」이 1개(暑滯), 「內傷門」이 1개(酒滯), 「虛勞門」이 1개(盜汗), 「痰門」이 1개(年久痰核), 「大便門」이 1개(痢疾), 「精門」이 1개(夢泄), 「血門」이 1개(吐血), 「眼部」가 1개(眼疾), 「耳部」가 1개(耳聾), 「胸腹部」가 1개(腰脇痛), 「小兒門」 1개(帶下)로 집계된다.

그러나 그 실제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추가된 40항목 중 17개는 소항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으며,<sup>19)</sup> 그 위치 또한 눈에 잘 떨어 수 있게 가장 앞부분이나 혹은 가장 뒷부분에 삽입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상문, 부인문, 제상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酒滯, 帶下, 落傷은 사실 그 뒤에 동일한 소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복 추가한 것이다. 또 그 내용을 보면, 「風門」 맨 첫 항목에서 새로 ‘증보’된 부분이 ‘口眼不正邪’인데, 이는 명백히 ‘口眼歪邪’를 잘못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

18) 황병기, 국립중앙도서관, 『증보단방신편』(무구재古7671-47) 초록 참조.

19)吐血, 眼疾, 耳聾, 痔疾, 帶下, 聾耳, 丹毒, 落傷, 違骨, 火傷, 金刀傷, 狗咬傷, 蛇咬, 蛇入口中, 蜂螫, 馬肉毒 등이다.

17) 大韓每日申報 1907年 2月 21日 雜報, 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 大邱黃文社長金光濟徐相敦氏

밖에 瘡腫의 일반 치료원칙을 설명하는 문장의 첫머리 ‘勿論某瘡’이라는 구절을 잘못 떼어내어 제목으로 올린 것,<sup>21)</sup> 瘡腫의 터진 부위 치료법에 나오는 첫 문장 ‘破瘡處’를 잘못 떼어내어 제목으로 올린 것<sup>22)</sup>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單方新編』에서는 보이지 않던 오류가 증보된 부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의학에 대한 초보적 이해만 있어도 정정할 수 있는 실수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 『增補單方新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보면 『增補單方新編』이야말로 원저서인 『單方新編』의 대중적 인기에 기인 인상이 강하다. 즉 내용의 통합이나 편집의 재구성성을 위하여 진지한 공을 들인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單方新編』의 성공에 기대어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달리 비유해 보면, 조선 후기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증보한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와 같은 실질적 내용의 증보는 없다시피 하다. 제목에 ‘증보’가 들어가서 마치 앞의 예와 같은 상황을 추측한다면 『增補單方新編』의 실제 크게 잘못 보게 된다는 뜻이다. 어쨌든 이 책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再版을 거듭하게 된다. 이하 그 간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913년(大正2) 博文書館本과 新舊書林本

『增補單方新編』은 1913년에 간행되었는데, 京城의 博文書館에서 간행한 것과 新舊書林에서 간행한 두 종류가 있다. 앞의 것은 호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뒤의 것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기대학교(수원) 도서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 20) “半身不遂 口眼不正邪”라고 하면서 언해로는 “반신불수구 안불등사”로 목차에 쓰여 있다. 본문에서도 풀이하기를 “반신불수와 입눈비둘어진듯”로 기술하고 있다(『增補單方新編』 風門).
- 21) “勿論某瘡”이라고 하면서 언해로는 “물론모종기하고”로 목차에 쓰여 있다. 본문에서는 “(勿論某瘡)初發時以醋作膏類塗當處連珠瘰癧無不神效”라고 하면서, 언해로는 (물론모종기口고)초훈초를口사발만불에다려서口종즈짐되거든두고 즈조바르라”로 기술하고 있다(『增補單方新編』 瘡腫門).
- 22) “破瘡處”라고 하면서 언해로는 “파종처”라고 목차에 쓰여 있다. 본문에서는 “(破瘡處)射干作末類摻之神效”라고 하면서, 언해로는 “(파종된터)범에부치썩리를작말口야즈조썰이라”로 기술하고 있다(『增補單方新編』 瘡腫門).

○ 1917년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현재 유일본으로, 간행본이 아닌 필사본이지만 1917년 음력 7월 3일에 필사를 마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sup>23)</sup> 또 그 발행처가 龍仁의 柳璣으로 되어있어, 용인에 살던 류진이라는 인물이 필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增補單方新編』이 상업적 출간본 뿐만이 아니라, 필사본으로도 전해져 민간에 보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필사자인 류진은 이와는 별도로 『經驗方』이라는 의서를 남기고 있어서,<sup>24)</sup> 『單方新編』과 함께 서로 비교해 볼 만한 대상이 된다.

○ 1918년 이후 간행 상황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增補單方新編』은 1913년에 처음 간행되었으며, 朴문서관본과 新구서림본이 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1918년 이후 1922년까지 거의 매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발행처와 주요 소장처를 일별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이상 『增補單方新編』은 1913년에 朴문서관과 新구서림에서 간행한 이후, 1918년, 1919년, 1920년, 1922년에 新구서림에서 연이어 간행하였고, 1922년에는 朴문서관에서도 다시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922년 朴문서관본의 판권지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 상단을 보면, 1913년(大正2) 1월 17일 초판이 발행되었고, 약 9년 8개월 뒤인 1922년(大正11) 9월 14일에 8판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아래 격자 안에 적힌 정가를 보면, 1909년 유일서관에서 나온 『單方新編』에 비해 가격이 5전 오른 45전으로 매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대목의 원저자는 다산 정약용과 주촌 신만, 편역 겸발행자는 지송옥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인쇄자는 金重煥, 인쇄소는 大東印刷株式會社, 발행소는 博文書館으로 되어 있다.

23) ‘大正六年丁巳(1917)陰七月初三日畢草’  
24) 柳璣, 『경험방』, 국립중앙도서관, 古767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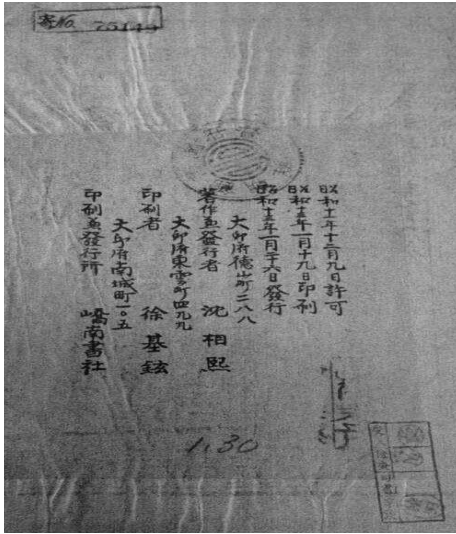


Fig. 5. Copyright paper of 『Shinpyonmyobang』

柳道昇이 쓴 서문이 있는데, 그 일부를 보기로 한다.

우리 동국에는 양평군 허준이 그 이치를 바탕으로 『동의보감』을 저술하였고, 지중추부사 강명길의 『제증신편』을 편찬하였으며, 해암 황도연이 『醫方活套』를 편집하였다. 한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러 의서를 수집하고 그 중에 단방을 선별하여 한 편의 책을 만들었으니 가정에서 늘 사용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산 선생 정도의 학문에 의약의 이치까지 일가견을 겸하였다면 신묘한 경지에 올랐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선생이 돌아가신지 백여 년이 넘어 이 책이 후손의 집 벽 속에 감춰진 물건이 되어 버렸으니 아는 사람들은 평소 얼마나 안타까워했겠는가? 몇 해 전 내가 친구 丁尙鑣의 서울 집에 놀러 가 몇 개월 잘 지냈는데 그 집에 소장하고 있던 이 책의 초본을 얻어 보게 되었다. 이에 친구 沈相熙를 불러 교정을 보게끔 하였다. 심군이 말했다. “병에는 약이 없으면 안 되고 약은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 의사가

긴요하게 사용할 만한 것으로 이만한 치료 방법이 없네. 집집마다 비치해 두고 증상에 따라서만 써도 급한 용도에든지 시간을 두고 사용할 때든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니, 자네가 세상에 퍼내어 온 나라를 치료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였다.

(我東國陽平君許浚，以之著寶鑑，知中樞姜命吉，撰次濟衆新編，惠庵輯醫方活套，而丁茶山先生若鏞，集群書選單方爲一篇，以爲家庭日用之資。夫以先生之學問，兼有關於醫理者，亦可以謂之通神，而是篇之嘉惠于人者，皆扁華之遺方也。然先生歿，數百載尙，作本孫家藏壁之物，識者之尋常慨恨，顧何如耶。往年余與丁友尙鑣遊京邸，數月因緣，得其家所藏草本，而邀沈友相熙，校之。沈君曰，病不可無藥，藥不可無醫，醫人要用，無如此方。可以置之家家，對投而以爲緩急之用，子盍公諸世，而醫一國乎。)

이상의 언급을 보면, 『新編妙方』은 정약용의 후손인 丁尙鑣이 소장하고 있던 경험방으로 柳道昇이 그 초본을 얻어 沈相熙에게 편집하게 한 뒤 발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정약용 선생은 여러 의서를 수집하고 그 중에 단방을 선별하여 한 편의 책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單方新編』과 『新編妙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후손 가에서는 이 책을 정약용의 저술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單方新編』이 널리 간행된 이후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약용의 저술임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新編妙方』의 내용은 『單方新編』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雜方’이라는 병문 하에 마치 또 하나의 독립적인 의서처럼 보이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五言 또는 七言의 漢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후반부에는 『單方新編』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다만 순서상 『單方新編』의 ‘諸

傷門이 『新編妙方』에서는 후반부의 맨 앞에 놓였고, 끝부분의 ‘六畜病’ 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新編妙方』이 『單方新編』보다는 『增補單方新編』을 저본으로 편집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增補單方新編』에서 추가된 臍自落者, 丹毒, 聾耳, 咽喉始痛 등 4개의 소항목이 『新編妙方』의 「小兒門」에서도 똑같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보면, 『新編妙方』은 『增補單方新編』이 유행한 이후에 재편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도승의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정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의서에만 기반해서 『新編妙方』이 저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며, 그 전승 문제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sup>26)</sup>

이상 『單方新編』은 1909년 유일서관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로, 1911년 동문관, 1912년 동양서원에서 재간되었고, 『增補單方新編』이라는 이름으로 신구서림과 박문서관에서 1913년부터 1922년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8판까지 간행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사본으로도 전해지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938년에는 『單方新編』의 내용이 재편집되어 『新編妙方』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었다. 한편 『單方新編』은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는데, 1978년에는 서울 明文堂에서 다시 간행되었고,<sup>27)</sup> 2000년에는 丁茶山 著; 安德均 譯으로 서울의 一中社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sup>28)</sup>

#### IV. 결 론

본고에서는 일제 시대 대표적인 단방 의서의 하

나인 『單方新編』을 대상으로, 그 체재와 간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增補單方新編』, 『新編妙方』으로 이어지는 문헌 전승의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본 것이다.

『單方新編』은 민간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한 증상과 부위별 구성, 일상에서 시행하기 용이한 치료법, 그리고 의서의 활용도를 높인 언해역 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전래의 경험방을 이의경이 시대적 수요에 맞게 재편집하여 언해역을 붙여 간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單方新編』의 문헌 전승에 대해 크게 경로를 그려보았다. 『單方新編』 → 『增補單方新編』 → 『新編妙方』으로 이어지는데, 『單方新編』은 1909년 유일서관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로, 1911년 동문관, 1912년 동양서원에서 재간되었고, 『增補單方新編』이라는 이름으로 신구서림과 박문서관에서 1913년부터 1922년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8판까지 간행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사본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8년에는 그 내용이 『新編妙方』으로 수용되어 재편집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增補單方新編』은 소항목들을 다소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초보적인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며 내용의 통합이나 편집의 재구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增補單方新編』은 원저자인 『單方新編』의 대중적인기에 편승하여 상업적으로 급조된 인상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新編妙方』의 경우, 그 후반부에 『單方新編』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소항목의 편제를 살펴보면 『單方新編』보다는 『增補單方新編』을 저본으로 편집된 인상이 강하다. 즉 『新編妙方』은 『增補單方新編』이 유행한 이후에 재편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單方新編』은 전래의 경험방을 토대로, 1909년 당시 의료 수요에 맞추어 편집 간행되었으며, 1913년 『增補單方新編』으로 재편집되어 1922년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8판까지 간행되었다. 그리고 1938년에는 다시 그 내용이 『新編妙方』으로 재수용 되어 출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설명을 넘어서 그

26) 新編妙方의 문헌 전승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다산의 가장의서라는 측면에서의 검토와 함께 더 많은 증거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의 활발한 자료 발굴 과정에서 추가 연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27) 마찬가지로 정약용, 신만 원저 ; 지송옥 편역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주요 소장처는 한양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대전대학교 도서관 강원대학교 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28) 주요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원재료가 된 『單方新編』의 원저술은 과연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방의서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아쉽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의 이어지는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V.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회원의 민간요법활용기반 구축사업(K13210)과 생물전환한방처방효능강화연구(K14050)의 지원을 받았다.

## References

1. Danbangshinpyon. Yuilseoguan. 1909. Handok museum of medicine. Ilsanmungo : Han50 - 2337.  
單方新編. 唯一書館. 1909. 한독의약박물관. 일산문고: 한50-2337.
2.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 Bakmunseoguan. 1922. Preserved i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增補單方新編. 博文書館. 1922.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본.
3. Daehanmaeilshinbo. National Library of Korea. Original DB services.  
大韓每日申報.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DB.
4. Daehanjegukguanbo. Gyuji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Original DB services.  
大韓帝國官報.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 DB.
5. Manbyungmanyak. National Library of Korea. Go Jo68-39  
萬病萬藥. 국립중앙도서관. 古朝68-39.
6. Shinpyonmyobang. National Library of Korea. Han Go Jo68-60  
新編妙方.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8-60.
7. Ilsungrok.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Comprehensive Korean classics DB services.  
日省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8. Juchonshinbang. National Library of Korea. Mugujae Go767139.  
舟村新方. 국립중앙도서관. 무구재古7671-39.
9. Translated into Korean: Juchonshinba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eries of famous classics on medicine. 2007.  
국역주촌신방. 한국한의학연구원 고전명저총서시리즈. 2007.
10. Gwon SH. Hansujaejip. Great collections of Korean literature 150~151. Minchu. 1995.  
權尙夏. 寒水齋集. 한국문집총간 150~151. 민족문화추진회. 1995.
11. Liu J. Gyungheombang. National Library of Korea.  
柳璉. 經驗方. 국립중앙도서관. 古7671-113.
12. Hwnag BK. Enlarged edition of Danbangshinpyon. National Library of Korea. Mugujae Go7671-47 Abstract.  
황병기. 국립중앙도서관. 增補單方新編 무구재古7671-47 초록.
14. Kim DJ.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Seoul. Tamgudang.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93.
15. Lee SW. Hanguksikyungdaejeon. Seoul. Hyangmunsa. 1998.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서울. 鄉文社. 1998.
16. Miki S. Osaka. Printed in private. 1956.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自家印行. 1956.
17. Kim DW. Growth of medical service in private sector. masterate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김대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8. Park SY. A study on Status & Significance of Injeji in Medical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Researches  
on the Korean Shilhak. 25. 2013.

박상영. 인제지의 조선후기 의사학적 위상과  
의의. 한국실학연구 제25집. 2013.

19. Han JW. Study on medical folklore seen  
through the police bureau hygiene and  
inspection reports in the 1920s. Studies  
for History and Folklore. 42. 2013.

한지원. 1920년대 경무국 위생과 조사보고서  
를 통해 본 의료민속 연구. 역사민속학 제42  
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